

보 도 자 료	
	작성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박정은 연구위원 (044-960-0284) 임정하 부연구위원(044-960-0236)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김은화 연구원(044-960-0289)
	배포 지식·홍보팀(044-960-0582)
보도일시	■ 즉시 보도 가능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재생 패러다임 전환 모색

-국토연구원, 「노후주거지 정비방향 국제세미나」 개최...
영국·일본·한국 사례 통해 지방도시 맞춤형 정비방향 논의-

- 국토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명수)은 26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노후주거지 정비방향 국제세미나: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재생 패러다임 전환」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도시 노후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방향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 개회사에서 김명수 원장직무대행은 “노후주거지는 물리적 노후화뿐 아니라 인구·경제·공동체 쇠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공간 “이라며, ”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재생 모델과 공공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축사에서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노후주거지는 오랜 시간 주민들의 삶을 지탱해 온 소중한 생활공간“이며, “노후주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생활 공간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국·일본·한국의 전문가들이 각국의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며, 지방도시 노후주거지의 지속가능한 재생과 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 영국: 주거 디자인 품질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 매튜 카모나 교수(런던대학교)*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주거 품질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의 설계 리더십과 디자인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 런던대학교(UCL) 도시계획학부 교수, 「도시설계 장소 만들기의 여섯차원」 저자, 영국 왕립도시계획학회(RTPI) 공로상 수상

○ 일본: 주민 참여와 지역협력을 통한 노후주거지 재생

- 토시오 오오츠키 교수(도쿄대학교)*는 일본의 초고령사회와 인구감소에 대응한 주거지 관리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전문가·민간기업이 협력하는 지역관리 모델과 관계인구 확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도쿄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마을에 살다(Living in the Town)」 저자, 도시주택학회 공로상 수상

○ 한국: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특징과 정책방향

-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도시 노후주거지의 형성과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정비체계와 공공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한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방향을 제안했다.

□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방도시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정책과 주민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정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시재생연구센터 박정은 연구위원(☎ 044-960-02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